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시청앞 조형물 '이기부처님과 구룡'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올 부처님 오신날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장엄했다. 아홉 마리의 용이 향수를 뿌려 아기부처님을 옥목시키는 모습이다. 높이 15m, 지름 13m의 원형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시청앞 조형물 가운데 가장 크다.



장애인과 함께 소백산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들도 제등행렬에 동참, 종로거리를 밝혔다.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불기 2544년 연등축제가 7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연등법회와 문화행사, 공연 등으로 낮12시부터 밤 11시까지 화려하게 펼쳐졌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펼쳐져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고 이웃에 회향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이 모 저 모

시민참여 프로그램 단연 인기

○...12시부터 우정국로 거리행사는 30여개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준비한 33가지 행사가 펼쳐졌다. 삼천불탑 만들기, 연등 만들기, 전통사찰음식 시식, 청소년 대승경연대회 등 불자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승류기 시범장을 찾은 외국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에 바쁜 모습. 미국인 열렌안(27)은 "큰 통나무가 금방 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며 "한국 사람들의 재주에 감탄했다"고 즐거워했다.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성황'

○...국제교사사회가 주최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우승의 영예는 캐나다인 열리나(28)와 캐서린(27)이 안았다. "상을 받으니, 즐거움이 두 배네요." 연등축제에 처음 참가했다는 이들은 서로서로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연등과 부상으로 받은 편액을 내보냈다. 캐서린은 "이틀 동안 관광가이드를 따라 고궁 등을 다녔지만, 이런 생동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1백여명이 참가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에서는 이들 외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 방한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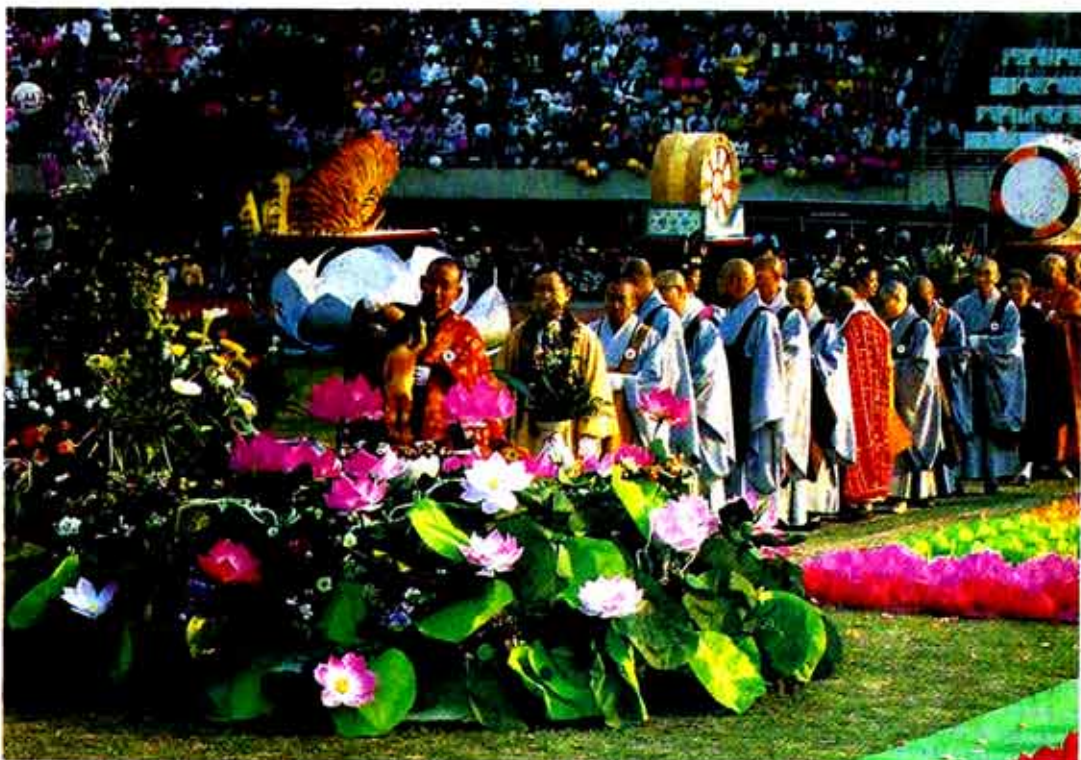
○...불교단체의 홍보관은 달라이 라마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활기를 띠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서명, 외국인 노동자자기 바자회, 탈북난민 물품 전시회, 강원도 산불피해 돕기, 지리산댐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 범불교대학원, 경원외국인노동자지원, 종은법당,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의 부스에는 시민들과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불교댄스그룹 큰 박수 받아

○...비전향장기수의 복수를 촉구하는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에서 유진 박은 연주 도중 바이올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열연했으며, 첫선을 보인 불교댄스그룹 '도리도리'가 '오계와 사랑의 문'을 불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려회 의장 정희, 불교장기수추진회 대표 성관스님, 나눔의집 원장 예진스님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비전향장기수 30여명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

김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는 오후6시 부처님 이운 및 관불의식, 김대중 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남북공동발원문 및 기원문 낭독, 행진선언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장엄하게 진행.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법흥스님은 경건봉독을 통해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부처"



관불의식 연등법회에 참가한 13개 종단 총무원장들이 신도들을 대표해 부처님 관불(灌佛) 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소년소녀의 찬불

한마음선원 대구지회 어린이합창단은 4~5일 대구 동야매화점 수성점 광장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공연을 펼쳤다.

3천배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6일 부산역에서 50명의 스님과 500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삼천배 철야정진법회를 거행했다.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을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부명(부명)을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솔호소정액(松素精液)」, 「솔선식(松仙食)」 등 「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시절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변이 쉬어지고 비만이 인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대구어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의학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증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대비심다라니의 준말)를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 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들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적불사에 거금보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의 료 법 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불로화정본포